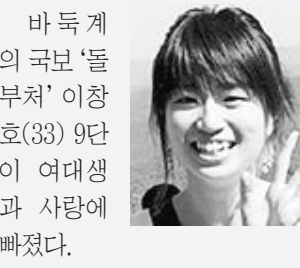


[바둑]

돌부처는 열애중

바둑기자 이도윤씨와



바둑계의 국보 '돌부처' 이창호(33) 9단 이 여대생과 사랑에 빠졌다.

이창호의 마음을 빼앗은 '연인'은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4학년인 재학 중인 이도윤(22·사진)양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기자와 취재원으로 첫 만남을 가졌다. 이후 이창호가 국내의 각종 기전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면서 돌이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튼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은 특히 바둑계에서 소문난 아마 강자이다. 어린 시절부터 여류 프로기사가 되기 위해 바둑을 공부한 이양은 뛰어난 기력을 과시하며, 연구생 1조까지 올라갔다.

농심배 흐름 바꾼 '강동윤 괴력'

中 튀자시 이어 '조선족 기사' 박문요마저 따돌려 초반 부진 한국팀 강동윤 활약에 8번째 우승 희망

한국이 제10회 농심배 세계바둑최강전에서 강동윤 8단의 연승 행진으로 8번째 우승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 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 5명씩의 대표가 출전해 토너먼트 연승제로 진행해 끝까지 생존선수가 있는 나라가 우승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지난 9년간 7회에 걸쳐 우승했으며, 지난 8회 대회 패권은 중국에 돌아갔다.

한국의 선전은 제1회 세계마인드 스포츠게임 남자개인전에서 리저 6단, 구리 9단, 박정삼 9단 등을 차례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던 강동윤의 연승에서 나왔다.

이번 대회 초반은 1번 주자 튀자시 의 4연승을 앞세운 중국이 강세였지만 강동윤이 흐름을 바꿔놓았다. 강

동윤은 지난 24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튀자시와의 대결에서 303수까지 가는 진밭 승부 끝에 1집 반 차이로 저지했다. 25일에는 일본의 아마다 기모오 9단을 157수만에 불계로 물리치며 2연승을 올렸다.

강동윤은 또 지난 26일 중국대표로 나온 조선족 기사 박문요 5단마저 283수만에 불계로 꺾었다. 박문요는 창하오 9단을 따돌렸지만 강동윤의 기세에 눌려 1승도 챙기지 못했다. 27일에는 일본의 하네나오키 9단을 199수 끝에 불계로 누르고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26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농심배 세계바둑최강전에서 강동윤 8단(왼쪽)이 중국의 박문요 5단을 상대로 불계승을 거뒀다. <사이버오 제공>

27일 현재 한국은 이창호, 이세돌, 강동윤, 중국은 창하오, 구리, 추젠 등 3명씩 남아있다. 일본은 아직 1승도 못 올린 채, 다가오 1명만 남아 있다.

강동윤은 올해 제1회 마인드스포츠 챔피언스 남자 개인전 제패에 이어 천원전 및 명인전 결승에 진출하는 등 상승장구 중이어서 몇 승까지 올릴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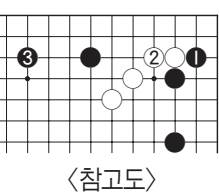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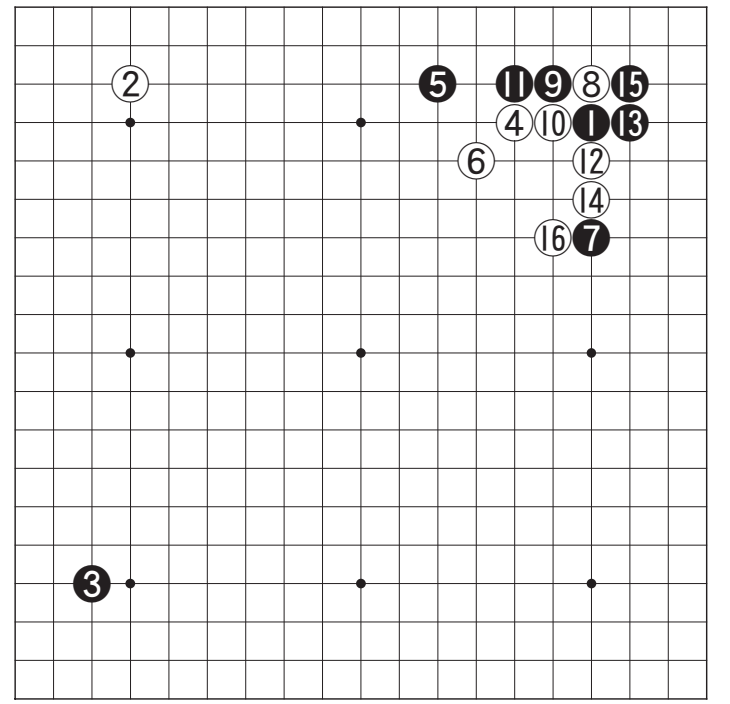
농심배 최다연승 기록은 5승으로 이창호 등 3명이 보유하고 있다. 농심배의 전신인 진로배에선 1997년 5회 때 서봉수가 9연승 신화를 수립한 적이 있다.

대회 우승 상금은 전기보다 5천만 원 늘어난 2억 원이며, 제한시간은 각 1시간, 6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진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여성부의 강자' 경기도

여성부 결승전 1보 (1~17) 白 조경진 5단 黑 박지선 5단 (경기도) (경기도)



<참고도>

이번에는 경기도가 막강화력을 과시하고 있는 여성

일반부의 결승전 대국을 소개한다. 경기도는 전국체전 여성부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분당, 일산 등지에 연구생 출신들과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출신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작년에도 경기도팀이 결승에 동반 진출해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예선부터 파죽지세로 결승에 까지 동반 진출, 금메달과 은메달을 확보해놓고 있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이세돌 국수전 2연패 눈 앞

목진석 꺾고 2연승 내달려 삼성화재배서도 4강 올라

이세돌 9단이 목진석 9단을 누르고 국수전 타이틀 방어에 눈앞에 왔다. 이세돌은 지난 24일 서울 한국기원 4층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52기 국수전 도전5번기 제2국에서 목진석 9단을 158수 끝에 불계로 물리치고 국수전 방어에 한걸음 다가갔다.

이세돌의 연승행마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19일 국수전 도전1국에서 승리한 이후 6연승을 내달리고 있다. 올해 88전 66승22패, 승률75%. 11월 한달간은 3일에 한 번 끝로 진행된 살인적인 대국 일정을 모두 소화하면서 9승2패를 기록했다. 한국랭킹 1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성적표다.

이세돌은 목진석 9단과의 역대전적에서도 1승을 추가해 21승13패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무려 8연승을 거두고 있다. 국수전 제3국은 오는 12월10일 한국기원에서 속개된다.

가이아자동차 후원하고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국수전은 기전규모 총 2억5천만원으로 각자 3시간에 60초



지난 24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52기 국수전 도전5번기 제2국에서 이세돌이 생각에 잠겼다. <사이버오 제공>

초읽기 5회의 제한시간이 주어진다. 4강 진출자는 차기 대회 본선 시드가 부여되며 우승을 차지한 기사에게는 4천500만원의 우승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이세돌은 삼성화재배에서도 중국세에 맞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대회 2연패를 노리고 있다.

이세돌은 현재 4강으로 압축된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에서 유일하게 준결승에 오른 한국기사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아마 여류국수전' 김혜림 2연패

최정 누르고 우승...연구비 200만원 수상

김혜림(16·명지고 1년)이 농심 새우깡배 제33기 아마여류국수전에서 여류국수부 우승을 차지, 지난해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지난 23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결승전에서 김혜림은 최정(12·성남미금초 6년)을 맞아 184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강창배 7단 '아마대왕' 등극

박성균 꺾고 덕영배 아마대왕전 우승

매일신문사가 주최한 제26회 덕영배 전국아마대왕전에서 강창배 아마 7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2, 23일 이틀간 대구 덕영치과병원 특별대국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결승국에서 주니어부 1위에 오른 강창배는 흑을 쥐고 시니어부 1위 박성균 아마 7단을 맞아 초반부터 물어붙여 승기를 잡았다.

강창배는 포기하지 않고 후반에 희사의 승부수를 던진 박성균의 공격을 무난히 막아내며, 123수 만에 불계승을 거둬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 아마 랭킹 상위 32명을 초청, 시니어부 16강과 주니어부 16강을 각각 4개 조로 나눠 22일 조별 리그전을 벌였고 23일에는 본선에 진출한 각 조 1, 2위가 토너먼트로 대결을 펼쳐 시니어부 우승자와 주니어부 우승자가 통합 결승전을 가졌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이번 대회기간에 함께 열린 어린이 초청전(사진)에서는 선발전을 거친 136명이 참가해 유치부 김동우(이승철 바둑교실), 1학년부 이시현(칠곡명재바둑교실), 2학년부 권세준(용산하늘바둑교실), 3학년부 손우찬(용산명문바둑교실), 4학년부 조정환(청아바둑교실), 고학년부 이주환(칠곡명문바둑교실), 여학생부 박지연(칠곡명재바둑교실), 학생부 이수익(대구시바둑협회), 유단자부 손정익(오름바둑교실), 최강부 이혜수(칠곡명문바둑교실)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루이, 조혜연 꺾고 여류국수전 4강 올라

루이 나이에이 9단이 제14기 가그 린배 프로여류국수전 8강에서 우승 후보 조혜연 8단을 누르고 준결승에 올랐다. 루이 나이에이는 지난 21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이 대회 본선토너먼트 8강에서 조혜연을 219수 끝에 불계로 제압했다.

승리한 루이 나이에이는 준결승에 선착한 김윤영 초단과 결승진출을 다룬다. 통산 5회 우승으로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이 있는 루이 나이에이는 지난 대회 준결승전에서 이민진 5단에게

막혀 대회 3연패가 무산된 바 있다. 마인드스포츠 여자개인전의 참패와 정관장배 중국대표 선발전 탈락 등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녀가 여류국수전을 통해 다시 한 번 '여제'의 명성을 되찾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회 제한시간은 3시간에 6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진다. 결승전은 3번기로 진행되며 우승상금은 1천1백만원, 준우승상금은 500만원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Pelliss Tower' (펠리스타워)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building and text describing its location and featur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im Dang Bu Dong San' (금당부동산)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WLB Welby Public Housing' (웰빙공인중개사)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u Gong In Jeong Gae Sa' (다우공인중개사)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 In Dong Sam Il Bu Dong San' (대인동삼일부동산)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